

남쪽에서 바라본 군자봉



시흥 군자봉의 역사와 지리

김락기

1. 머리말
2. 군자봉의 위치와 변천
3. 군자봉과 고인돌
4. 군자산성의 존재 여부
5. 군자봉과 군자봉 성황제
6. 맺음말

여 백

시흥 군자봉의 역사와 지리

1. 머리말

군자봉 바로 밑의 구지정 마을과 그 주변 군자동에 거주하는 시흥시민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구지정 처녀는 기神氣가 세서 시집가기 어렵다”든지 “다른 믿음을 갖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만 반드시 군자봉으로 돌아오게 된다”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군자봉 성황제가 단순히 성황제의 주제자主祭者인 당주堂主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의祭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마을의 주민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마을신앙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군자봉 성황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자봉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변천, 지리적 특성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곡절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까닭과 유래가 있게 마련이다. 또 그 까닭은 인간의 고도한 정신활동의 결과이기 보다 자연지리적 조건·역사적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되어 가

는 것이라 본다.¹⁾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군자봉 성황제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군자봉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군자봉이 각종 지리지에 등장하는 시점과 관련 전승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아울러 군자봉 인근의 안산 잿머리에서 거행되는 잿머리 성황제의 유래를 비교하여 군자 성황제 전승의 원형을 나름대로 찾아보고자 한다.

2. 군자봉의 위치와 변천

군자봉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높이 199m의 봉우리로서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삼국시대 이래 안산군安山郡에 속하였으나 장항구현獐項口縣·장구군獐口郡 등 군·현명만 전할 뿐, 군자봉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명은 남아 있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馬遊面의 구정리(九井里, 또는 九之井里)와 산북리山北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²⁾로 안산군내 동리洞里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군자리君子里로 합쳐졌는데, 군자봉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인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³⁾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始興郡과 수원군水原郡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⁴⁾에 따라 옛 안산

1) 마빈 해리스 지음, 박종렬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한길사, 2000), 15~19쪽 참조.

2) 『朝鮮總督府官報』明治45년(1912) 2월 8일자 호외.

3) 『朝鮮總督府官報』大正2년(1913) 12월 29일자 호외.

4) 『朝鮮總督府官報』大正3년(1914) 3월 13일자 호외.

군의 마유면과, 대월면大月面·와리면瓦里面을 합쳐 군자면君子面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蘇萊邑·수암면秀岩面·군자면이 합쳐져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군자동君子洞이 되었다.⁵⁾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대한제국기(『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1989년
九之井里	구지물(九井里)	君子里	君子洞
山北里	산뒤(山北里)		

결국 현재 군자동의 뿌리가 되는 것은 조선시대 군자봉 인근의 구지정리와 산북리인 셈인데,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의 안산군 마유면 조에는 ‘구정리九井里를 ‘구지물’로, 산북리山北里를 ‘산뒤’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각각 아홉 개의 우물이 있는 마을, 군자봉의 뒤쪽 마을이란 의미의 한자漢字 표기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789년(정조 1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구지정리九之井里’와 ‘산북리山北里’를 비롯한 마유면 전체의 호수가 541호, 인구가 2,307명



〈그림 1〉 구지정의 아홉 우물 중 유일한 현존 우물

5) 『거무개·배우물 마을지』(거모3통 마을회, 2001), 39쪽 참조.

(남자 1,247명, 여자 1,06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규모는 당시 안산군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군내면郡內面의 597호, 2,619명과 불과 300명 정도 차이어서 적은 인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마유면에 속하는 오이도鳥耳島와 정왕동正往洞, 죽을동竹粟洞 지역이 대부분 매립되기 이전의 갯벌로서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마유면에서도 가장 거주민이 많았던 곳이 군자봉 인근으로 추정된다.

한편, 군자봉 또는 군자산이란 명칭은 조선시대 문종文宗과 단종端宗의 안산 거둥과 관련하여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1. 군자산(君子山)은 본래 서령산(西嶺山) 혹은 일봉산(一峰山)이라 불리어 왔는데, 조선(朝鮮) 문종(文宗, 1450~1452)때 왕비(王妃) 현덕왕후(顯德王后)가 승하하자 문종(文宗)이 군자면(君子面) 목내리(木內里) 능내동(陵內洞)에 묘(墓)를 쓰게 되었다. 당시 문종(文宗)이 왕후묘(王后墓)에 행차할 때 이 산의 산세(山勢)가 절묘하고 웅대함에 감탄하여 군자산(君子山)이라 명명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백성들이 군자산(君子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⁶⁾

가-2.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이 목내리(현 안산시 목내동)에 있는 어머니의 묘소를 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마치 연꽃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과 같다 하여 군자산이라 했는데, 조선 말엽에 군자봉으로 개칭하였다⁷⁾

위의 두 기록은 거의 같은 시기(198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군자봉이란 이름의 작명자(作者)를 각각 문종과 단종으로 달리 전하고 있다.

그런데 가-1의 설명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문종이 승하하기 11년 전, 세종世宗 23년(1441) 7월 23

6) 京畿道·明知大學校, 『始華地區 開發事業區域 地表調查』(1988), 115쪽.

7) 『始興郡誌』下(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1185쪽.

일 단종을 낳고 다음날인 7월 24일 세상을 떠났고,⁸⁾ 『문종실록文宗實錄』을 통해 문종의 안산 행차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종이 군자봉의 작명자라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가-2의 설명을 살펴보면, 단종은 재위 2년째인 1454년 9월 29일에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昭陵을 참배⁹⁾한 뒤 다음날



〈그림 2〉 1910년대의 군자봉과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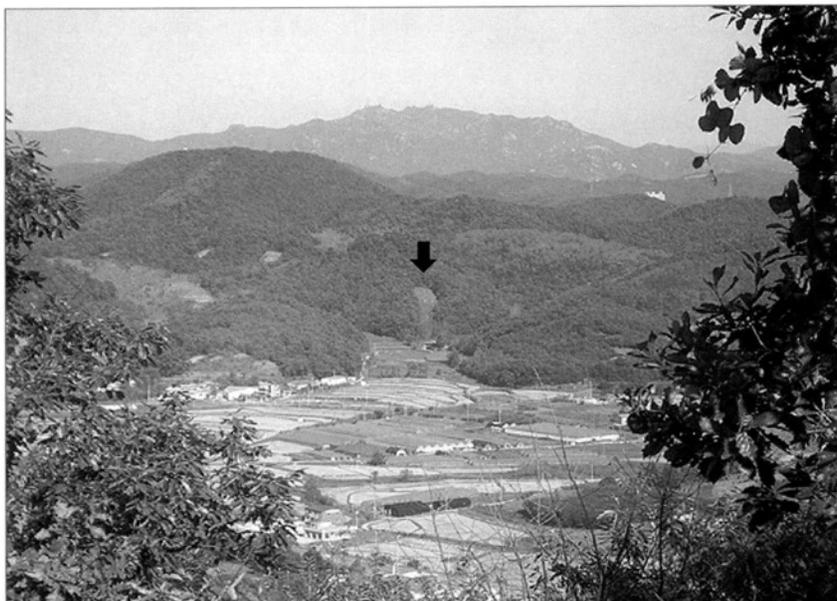
안산에 머문 사실이 있다.¹⁰⁾ 다음날에는 군자봉과 그리 멀지 않은 수리산에서 사냥을 한 뒤 과천으로 향했다.¹¹⁾

따라서 단종이 실제 군자봉을 보고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증거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가장 비중 있는 전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두 가지 전승에 모두 나타나는 현덕왕후 능의 존재는 군자봉이 명명되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현덕왕후의 장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현덕왕후의 능묘 예정지는 군자봉에서 바

-
- 8) 『世宗實錄』권93, 23년 7월 24일(무오), “왕세자빈 권씨가卒하였다. 嬪은 아름다운 德이 있어 動靜과 威儀에 모두 禮法이 있으므로, 兩宮의 총애가 두터웠다. 병이 위독하게 되매, 임금이 친히 가서 문병하기를 잠시 동안에 두세 번에 이르렀더니, 죽게 되매 양궁이 매우 슬퍼하여 수라[膳]를 폐하였고, 宮中의 侍御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는 이 없었다...”
 - 9) 『端宗實錄』권12, 2년 9월29일(정축), “임금이 친히 昭陵에 제사하고, 서울을 나가 良才驛 앞들에 이르니.....”
 - 10) 『端宗實錄』권12, 2년 9월30일(무인), “車駕가 安山の 甫川리에 머물렀다. 世祖께서 아뢰기를,.....”
 - 11) 『端宗實錄』권12, 2년 10월1일(기묘), “임금이 昭陵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沿道에서 사냥을 행하고, 甫川리에 이르러, 낮 수라를 들고 修理山에서 말을 몰아 사냥하였다. 해질 무렵에 果川에 이르러, 飛乙每里에서 車駕를 멈추었다”.

로 내려다보이는, 현재 시흥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된 광해군(光海君)의 국구(國舅) 류자신(柳自新)의 묘역인데, 이를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되어 세종이 실사를 명령했을 만큼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¹²⁾



〈그림 3〉 군자봉에서 바라 본 류자신 묘역(현덕왕후 능묘 예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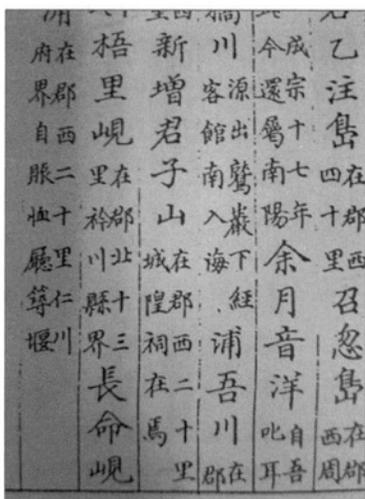
한편 각종 지지자료(地誌資料) 중에서 현재의 군자봉을 가리키는 ‘군자봉(君子)’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안산군조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명(山名)이 ‘군자산’으로 나와 있는데, 부가된 설명에 성황사(城隍祠)가 있다고 하여, 군자봉 성황제가 조선시대에

12) 『世宗實錄』 권93, 23년 8월 25일(기축) / 빈궁의 능소인 안산 고읍 땅이 흉악한 땅이라는 전농시의 중 목효지의 상소문 ; 8월 26일(경인) / 왕세자빈의 무덤혈을 살피게 하고 다시 길지를 찾아보게 하다 ; 8월 27일(신묘) / 민의생 등이 안산의 무덤혈을 살피고 목효지의 글을 논단하다 ; 9월 2일(병신) / 목효지가 천인으로 서 상언한 죄에 관해 논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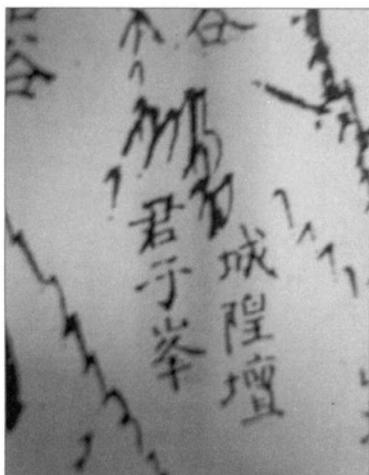
이미 읍지류에 기록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843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안산군조에 성황단(城隍壇)과 함께 군자봉이 나오고 있으며(그림 5), 1864년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군자봉만 표시되어 있다(그림 6). 또 1871년 편찬된 『경기읍지(京畿邑誌)』안산군조에는 군자산이(그림 7), 1894년 편찬된 『기전읍지(畿甸邑誌)』안산군조에는 ‘성황(城隍)’과 함께 군자산이 나오고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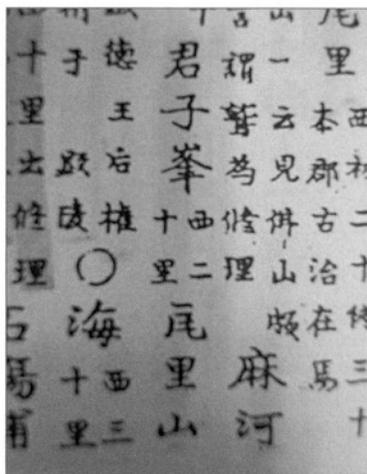


〈그림 4〉 『輿地圖書』의 君子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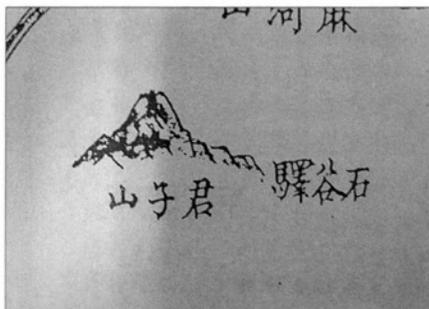
이와 같은 지지자료(地誌資料)의 표기방식으로 보아 ‘군자산’과 ‘군자봉’은 별 의미 없이 혼용되었으며, 조선 말엽에 ‘군자봉’으로 개칭하였다는 가-2의 설명은 그리 타당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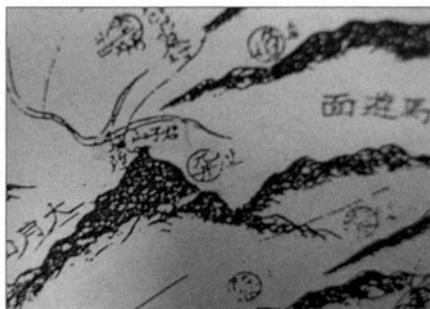
〈그림 5〉 『京畿誌』의 군자봉과 성황단



〈그림 6〉 『大東地志』의 君子峯



〈그림 7〉『京畿邑誌』의 군자산



〈그림 8〉『畿甸邑誌』의 군자산

3. 군자봉과 고인돌

군자봉 주변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군자봉에서 내려다보이는 오이도에 서해안을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이 발견되어 국가사적 441호로 지정되어



〈그림 9〉 354번기 고인들의 덮개돌(蓋石) 위로 담장이 쳐진 모습

있는 점과 군자동 산22-8번지, 군자봉 정상부 남쪽의 능선상에서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이 하나 조사된¹³⁾ 것을 보면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04년 12월에는 “군자봉 성황제 학술고증조사”의 조사자인 인하대학교 서영대 교수와 국립민속박물관 장장식 학예연구관이 구준물 마을 안인 군자동 354번지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큰 바윗돌을 발견하였고, 이를 시흥시청에 제보하여 기초 확인조사를 하였다.¹⁴⁾

13) 기전문화재연구원 · 시흥시,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173~174쪽.

고인돌 위로 그림처럼 담장이 쳐 있기 때문에 길에서는 그저 큰 바위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다.



〈그림 10〉 354번기 고인돌 덮개돌(蓋石)의 성형

조사 결과 덮개돌(蓋石)로 판단되는 암괴에 뚜렷이

나타나는 성혈(性穴)들, 판형(板形)으로 다듬어진 지석(支石)들로 보아 고인돌이 틀림없었다. 특이한 것은 개석이 놓인 지표면이 두툼하게 올라가 편평한 뒷마당에 비해 표고가 높은 점인데, 이것이 고인돌의 매납부(매장시설)인지 원위치에서 임의로 이동된 결과인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고인돌은 354번지에 속하지만, 353번지 주택의 담장이 지면을 벗어나 둘러진 탓에 시멘트벽돌담이 고인돌 위를 가로지르는 형국이다.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겠지만 고인돌의 덮개돌(蓋石)과 받돌(支石) 2기는 354번지에, 다른 받돌 2기는 353번지에 흩어져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고인돌에 고사를 지내거나 고깃배의 닻줄을 매기도 한 추억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354번기 고인돌의 받돌(支石)

14) 기초조사는 2005년 1월 17일에 필자와 시흥시 향토사료실 김영연 전문위원(고고학 전공)이 하였으며, 354번지의 소유주로 8대째 구지정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대식 씨(66세)가 어린 시절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었다.

뫼개돌에 고깃배의 닻줄을 매었다는 것은 군자봉 인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20세기 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고인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군자봉의 서남쪽으로 야트막한 구릉이 펼쳐지고, 바로 앞에 넓은 갯벌이 형성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군자봉 주변에는 위의 두 기 뿐만 아니라 군자봉의 남쪽 산자락에 해당하는 시흥시 군자동 산 51-1번지에서 4기, 안산시 선부동 산 32번지에서 7기 고인들이 발굴된 바 있고,¹⁵⁾ 바로 옆인 안산시 선부동 산27번지에도 5기의 고인들이 분포한다.¹⁶⁾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군자봉 주변의 고인들은 모두 18기에 이르며,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로서 청동기시대에 군자봉을 중심으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 주민집단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군자산성의 존재 여부

군자봉은 높이가 199m로 그리 높게 생각되지 않지만, 해발표고의 기준이 되는 인천앞바다와 이어져 있는 곳이라 평지에 200m에 가깝게 우뚝 솟아 있는 셈이어서 정상에서 주변을 조망할 경우, 거의 막힘없이 사방을 살필 수 있는 요충중의 요충이다.

또 군자봉 남서쪽 넓은 벌판에 일제강점기에 만든 군자염전이 있었고, 현재는 그곳을 매립하여 시화공단 및 배후 주택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육지속의 산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림 2의 지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그림 2의 논으로 표시된 군자봉의 남서쪽 바로 아래까지

15) 명지대 박물관·경기도, 『安山 仙府洞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19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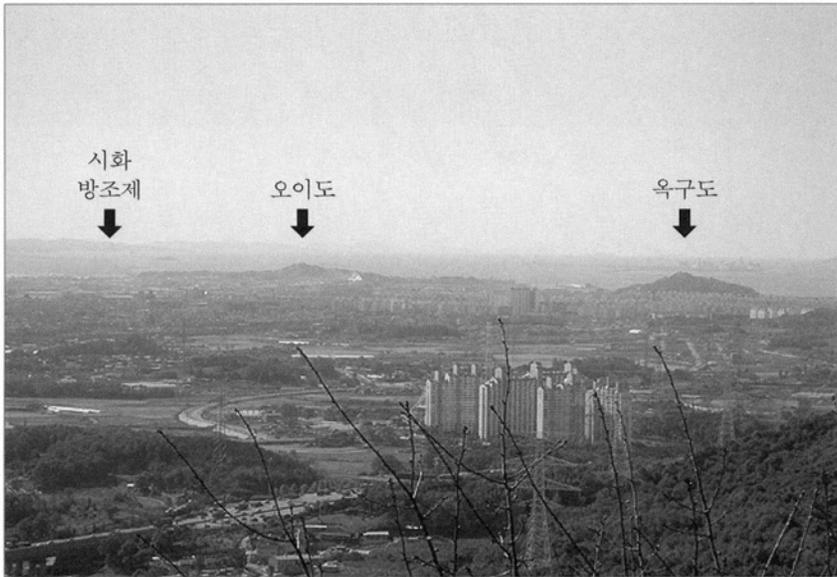
16) 『安山市史』上(편찬위원회, 1999), 547~548쪽 참조.

바닷물이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군자봉은 바다(해안)와 육지(내륙)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매우 중요한 곳이다.¹⁷⁾

군자봉에서 살필 수 있는 범위는 그림 9와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다쪽으로는 인천앞바다에서 시화호를 거쳐 이르게 되는 남양만 일대까지, 육지로는 소래산과 수리산이 이어지는 현재의 시흥시 북부와 안양시 동부 및 안산시의 북부지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곳에 산성이 존재한다는 전승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림 12〉 군자봉에서 바라본 시화호 및 남양만 일대

17) 윤명철, 「안산지역의 해양방어체제」(『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연구』, 백산자료원, 2000), 530쪽 참조.



〈그림 13〉 군자봉에서 바라 본 인천 앞바다

다-1. 표고 187m의 독립봉인 군자봉의 정상에 있으며 삼국시대의 토기편(土器片)과 기와의 파편이 산재해 있고 정상부에 후대에 지었던 성황당 자리가 있으며 조선 때는 봉수대(烽燧臺)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다.

삼국시대 한강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새지(要塞地)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위는 약 400m 높이는 약 10m이다.¹⁸⁾

다-2. 산 정상부에는 평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돌과 흙으로 쌓은 성축이 남아있다. … 성주(城周)는 211.5m로 성으로서의 역할보다 봉수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내의 북쪽에는 동서 725cm, 남북 795cm의 큰 구덩이가 남아있다. 남쪽에는 문지(門址)라고 생각되

18) 始興郡, 『始興의 傳統文化(增補版)』(1983), 84쪽.

는 곳이 있는데 폭은 260cm정도이다.

유물은 회색연질토기 및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봉수대일 것으로 보인다.¹⁹⁾

다-3. 그러나 군자봉의 실제 높이는 187m가 아니라 199m이며, 또 조선시대에 봉수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나 군자봉은 봉수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산 정상부에는 돌과 흙으로 쌓은 길이 400m, 높이 10m 정도의 성축이 남아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²⁰⁾

다-4. 최근(1999년 여름)에 필자가 조사했을 때는, 성축은 이미 거의 없어져 버리고, 둘레의 곳곳에 축성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²¹⁾

다-1의 기록은 문화재관리국에서 1977년에 펴낸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의 기술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고, 다-2는 고고학 전공자의 실제 조사 결과이다. 다-3은 이에 대한 반론인 셈인데, 전반적으로 보아 군자산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4는 산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현재 거의 없어져 버린 현장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군자봉 정상 부근에 산재한 각종 토기 및 기와편과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규모를 떠나 일정한 군사요새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엔 미흡하지만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올린 흔적은 군자봉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약 10m정도 아래에서 지금도 여전히 확인된다.²²⁾ 수풀이 아직 남아있어 어느 정도 구간에 걸쳐

19) 한양대학교·경기도, 『京畿道百濟文化遺蹟』(1986), 67쪽.

원문의 漢字는 한글로 바꾸었다.

20) 이한기,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시흥시, 1995), 161쪽.

21) 윤명철, 앞의 글, 528쪽.

남아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약 10m가량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축은 등산로 바로 옆에 있고, 반대편에는 각진 돌무더기가 있는데, 정밀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군자봉의 산세로 볼 때 다-2의 설명처럼 대규모 방어시설로서 성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고, 주로 해안의 정황을 살피고 어딘가에 있었을 본진本陣에 연락을 취하는 일종의 초소哨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조선시대에 군자봉에 봉수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봉



(그림 14) 군자봉 정상부근의 석축 흔적(서·동)

-
- 22) 2004년 10월 14일(목) 오후에 시흥시사편찬위원회의 홍현영·추교찬·장세희 연구원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던 도중 확인하였고, 군자성황제 당일인 2004년 11월 14일(일) 수풀을 걷어내고 촬영하였다.



〈그림 15〉 석축의 돌이 빠진 자리



〈그림 16〉 군자봉 정상부근의 석축 흔적(동→서)

수로서의 기능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²³⁾ 만약 조망 범위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기나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가 직접 산을 내려가 본진에 이상을 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 봉수대라는 전승을 낳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군자산성은 산성에서 연상되는 대규모 방어시설은 아니며, 전망대로서 역할이 우선인데, 연락의 수단으로 불이나 연기를 피웠기 때문에 봉수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추정은 군자봉 정상에 산재한 각종 토기류의 분석과 석축흔적의 구체적 분석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굴·발굴을 포함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5. 군자봉과 군자봉 성황제

군자봉이 가진 특색중의 하나가 바로 성황제의 무대라는 점인데, 성황제 관련 전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물론 전승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근거로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그러한 전승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 생각된다.

우선 군자봉 성황제의 유래에 관한 개별 설명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23) 조선시대 군자봉 인근에는 두개의 봉수가 있었다. 하나는 현재 오이도에 있던 오질에 봉수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정왕산에 있던 정왕산 봉수이다. 두 봉수는 모두 인천 문학산에 있던 성산 봉수와 연결되었는데, 조선 英祖 때에 오이도에 서 정왕산으로 봉수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영조 35년(1759)에 발간된 『輿地圖書』 안산군 봉수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正往山烽巖. 옛 淸叱耳島 봉수를 지금 여기로 옮겼다. 남쪽으로 南陽 海雲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仁川 城山에 응한다”고 기록되었다.

같다.

라-1. 군자리 성황당지(君子里 城隍堂址) : 군자봉 정상(君子峰 頂上)에 있었다 하며 여러번 중건(重建)했으나 원인모를 불이나거나 밤중에 몰래 파괴되었다고 전하는데 신라 경순왕(敬順王)을 여기에 모셨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지금은 불타없어져 흔적도 찾을 길이 없으나 성황당(서낭당)은 예부터 우리 조상의 토속적인 신(神)을 모시는 건물을 말하며 성황당에는 보통 큰 돌 무더기와 고목이 있다.²⁴⁾

라-2. 성황당지(城隍堂址) : 군자면 군자리의 군자산(君子山) 정상에 있다. 신라 제56대 경순왕(敬順王)을 여기에 모셨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경순왕의 부인인 순흥 안씨가 난을 피하여 군자봉 아래에 있는 친정에 살았는데 경순왕의 승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난중이라 갈 수 없어 군자봉 정상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남편의 명복을 빌었다. 그랬더니 어느날 밤 꿈에 경순왕이 나타나 부인의 정성을 치하하고 한가지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하고 사라졌다. 안씨는 평소 반신불수인 몸종을 불쌍히 여겨 왔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몸종의 병이 나아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사람들이 군자봉의 정상에다 성황당을 짓고 경순왕의 위패를 모시고 소원을 빌었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성황사(城隍祠)라 하였다. 여러번 중건(重建)했으나 원인 모를 불이 나거나 밤중에 몰래 파괴되었다고도 한다. 현재는 터만 있을 뿐인데, 근자에 인근주민들이 정상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치성을 드린다.²⁵⁾

24) 『始興의 傳統文化(增補版)』(始興郡, 1983), 155쪽.

25) 『始興郡誌』上(편찬위원회, 1988), 597쪽.

라-3. 유래 : 군자성황제(君子城隍祭)는 멀리 고려 초기부터 거행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즉, 신라 제56대 경순왕(敬順王)이 고려에 사직을 넘겨 주고 경주를 떠나 충북 제원군을 거쳐 강원도 원성군 고자암에 미륵불상(彌勒佛像)을 조성한 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 마을에 이르러 안씨부인과 생활하고 아들 덕지(德摯)를 낳았다고 한다.

그 후 경순왕이 죽자 안씨부인이 마을 뒷산인 군자봉에 매일 올라가 치성을 드리자, 어느 날 꿈에 경순왕이 나타나 안씨부인을 위로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얼마 후 내의시랑 서희(徐熙, 940~998)가 송나라 사신으로 출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씨부인의 영혼이 나타나 사행(使行)길을 도와주어 그 은공으로 군자봉 정상에 경순왕의 영정(影幀)과 안씨부인의 소원당(所願堂)을 지어 주었다. 그 후부터 인근의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2월에는 성황신(城隍神)인 경순왕과 안씨부인 및 장모 홍씨의 영정을 모시고 인근의 마을로 내려와 유가를 들고, 10월에는 군자봉 정상에 있는 소원당(또는 城隍祠)에서 신곡맞이 행사를 1천여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성황제를 지내오고 있다.²⁶⁾

위의 세 자료를 살펴보면, 성황제의 대상으로 경순왕을 모신다는 간단한 언급에서(라-1), 경순왕-부인 안씨-몸종의 이야기로(라-2), 다시 경순왕-안씨-홍씨아들 덕지 - 서희徐熙의 사행使行등으로 전승이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서희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간 것은 광종光宗 23년인 972년이었고,²⁷⁾ 경순왕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보다 6년

26) 이한기,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시흥시, 1995), 200~201쪽.

27) 『高麗史』 第2卷, 世家 第2, 광종 임신 23년(972), “내의시랑 徐熙 등을 송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송나라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의 식읍을 더 주고 추성 순화 수절 보의 공신(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 칭호를 주었으며 서희에게는 검교 병부상서를, 副使인 내봉경 崔業에게는 검교 사농경 겸 어사대부를, 判官인 광평시랑 康禮에게는 검교 소부소감을, 錄事인 광평원의랑 劉隱에게는 검교 상서 급부랑중을 각각 주고 아울러 官誥를 주었다.”

『高麗史』 第94卷, 列傳 第7, “...광종 23년에 사신으로 송나라에 갔었다. 당시 고

뒤인 경종景宗 3년인 978년이였다.²⁸⁾

따라서 이미 세상을 떠난 경순왕과 안씨 부인이 서희의 사행을 도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서희의 사행이 비교적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 원래의 전승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이, 유사한 전승을 갖고 있는 안산 잿머리 성황제이다.

마-1. 서낭국의 유래 :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성두부락 뒷산에 성황당이 있다. 부락 주민들은 이 성황당에서 매년 10월 초순이면 당제(堂祭)를 지내고 있다. …성황당 당제는 고려 제6대 성종 때부터 지내져 내려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유래를 보면 성종때의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중국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서희가 수행원을 이끌고 뱃터에 당도하여 송나라로 떠나려 하자, 조용하던 바다가 별안간 폭풍우가 몰아쳐 배를 삼킬 듯 하였다. …서희가 뱃길의 장도(壯途)를 비는 제(祭)를 지내고, 돌아와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에 소복단장한 두 영이 홀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웬 여인네들인가!』 서희는 호통을 쳤다. 두 여인은 슬픈 얼굴을 하고 다 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비(妃) 홍씨와 나의 친정어머니 안씨입니다. …』나(홍씨)는 김부(金傅)대왕과 결혼한 첫날밤에 소박을 맞았다고. 친정에 돌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중 병을 얻어 회생치 못하고 그만 청상(靑孀)으로 죽어버렸오. 나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역시 횡병으로 이 세상을 등지니 원통하고 절통하게 죽어간

려에서는 송나라와 10여 년 동안이나 왕래가 없다가 서희가 사신으로 왔는데 그의 행동이 절도 있고 예법에 적합하였으므로 송나라 태조가 가상히 여기어 검교 병부 상사(檢校兵部尙書) 벼슬을 주었다”.

28) 『高麗史』 第2卷, 世家 第2, 경종 무인 3년(978), “여름 4월에 정승 金傅가 죽었다. 그에게 敬順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것이 한(恨)이 되어 모녀 혼령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었다오』…

자손을 두지 못했으니 누가 두 혼령의 지노귀를 풀어 주며 제(祭)날인들 제상(祭床)하나 마련하겠느냐는 것이다. 의지할 마땅한 곳을 찾아 헤매던 중 서희가 사신으로 송나라에 건너가는 것을 알고 거처할 곳이라도 얻을 까 하여 바다에 풍파를 일으켰노라고 하였다.…(서희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였다.…서희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튿날 서희는 그 곳에 정성을 다해 성을 쌓고 아담한 사당(祠堂)을 지었다. 화공을 시켜 꿈에 본 두 여인의 모습을 일러 주며 그리게 하였다.…그 후 부터는 중국을 드나드는 사신이나 배를 가지고 어업을 일삼는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면 반드시 이 사당에 제물을 차려놓고 극진히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29)

마-2. 역사 및 유래 : 안산시 성곡동 산 77번지에 위치한 잣머리 성황당은 다른 여러 지방에 있는 성황당과는 달리 발생 유래가 특이하다. 일반적인 성황당이 한 마을 단위만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한 신당(神堂)으로 발생 한데 반해 잣머리 성황당은 발생 설화가 독특하다. 고려 제6대 성종(982~997년)때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어 잣머리연안(현재 당집이 있는 아래)에서 배를 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쳐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서희가 장도(壯途)를 비는 제를 지내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 소복을 한 두 여인이 나타나 “우리는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김부대왕)의 비 홍씨와 친정어머니 안씨인데 경순왕과 결혼 후 나라가 망하고 비명에 죽은 것이 한이 되어 모녀 혼령이 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니 저희 거처라도 마련해 주십시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서희는 그러마고 약속하였다. 서희는 이튿날 그곳에 작은 성을 쌓고 사당을 지은 후 화공을 불러 꿈에 본 영정을 그려 모신 이후

29) 京畿道半月地區出張所, 『내고장 傳統文化』(1985), 92~93쪽. 이 전설은 京畿道에서 발간한 『傳說誌』(1988)의 86~87쪽에도 서술체로 바뀌어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위령제를 지냈다. 그러자 신기하게 바다가 잔잔해지고 서희는 아무 탈 없이 송나라에 다녀와 막중한 외교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다.³⁰⁾

위의 전승은 군자성황제의 전승과 일정한 차별성이 있는데, 우선 경순왕은 단지 이야기 주인공인 두 부인의 신분을 설명하는 역할에 그치고, 중심은 어디까지나 홍씨, 안씨부인과 서희의 사행이다. 같은 해인 1988년에 출간된 라-2의 기록에는 서희의 이야기가 없고, 『전설지傳說誌』 잿머리 성황제에는 마-1과 같이 서희와 홍씨, 안씨의 이야기가 중심구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서희의 사행관련 전승이 현재의 안산시 지역에 전해내려 왔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더구나 2004년에 군자봉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채록한 구술 내용을³¹⁾ 보더라도 서희와 관련된 전승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볼 때 라-3과 같이 구조가 완비된 전승은 군자봉 성황제의 원형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안산 잿머리 성황제의 이야기 구조를 차용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에 보편적이지 않았던 안씨부인, 홍씨부인과 같은 용어가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혹 이 지역의 유력가문의 성씨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광범위한 구술조사를 통해 군자봉 성황제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군자봉 성황제와 군자봉 정상 부근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규모의 초소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0) 안산시, 『내고장 안산』(1992), 16쪽. 1999년 발간된 『安山市史』에도 그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31) 장장식,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시흥 군자봉 성황제 발표 논문집』, 시흥문화원, 2004) 참조.

6. 맺음말

이상에서 군자봉의 위치 및 역사·지리적 변천과 아울러 군자봉 성황제의 유래에 관한 전승과 역사적 사실을 대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자봉은 옛 시흥군의 군자면이란 명칭에서 보듯 인근 지역을 널리 아우르는 대표적 지명으로 쓰였는데, 그 유래는 조선의 제6대 임금인 단종이 어머니 현덕왕후의 룡을 참배하기 위하여 당시 군자봉이 속하였던 안산군에 행차했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선후기가 되면 각종 지지자료에 군자봉 혹은 군자산이 빠짐없이 등장하며, 동시에 성황사(성황단)가 같이 기록된 경우가 많아 군자봉 성황제가 조선 후기에 이미 실행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군자봉 정상 부근에 산성이 있었다는 과거의 전승 및 조사결과와 지금도 확인되는 석축의 흔적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산재한 토기의 연대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초소의 기능을 가진 소규모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초입에 위치하였으며, 사방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는 군자봉의 지리적 장점에서 비롯된 이러한 초소는 가까운 오이도에 봉수대가 설치되는 조선 전기에는 그 기능이 정지되었을 가능성 있다는 점도 아울러 살펴보았는데, 좀더 정확한 규모 및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시굴·발굴을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군자봉 성황제의 전승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서희의 사행은 사실상 군자봉 성황제 유래의 원형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 안산 잣머리 성황제의 전승구조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광범위한 구술조사를 통해 군자봉 성황제의 원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거의 전국 곳곳에서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놓고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서로 연고를 주장하며 다투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과 잘 연결되지 않으며, 개연성도 충분치 않은 단편적인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고 선전하는 일이 매우 잦다.

고장의 역사와 문화, 민속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충분히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자치단체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승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원형을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흥시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군자성황제의 고증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